오반디 작 '착한 아들'

제16회 한국청소년영화제 개막

10~12일 亞문화전당·롯데시네마 충장점 등서
전국청소년영상워크숍·이정국 감독과의 대화도

'톡톡 튀는 시네키드들을 만난다.'

제16회 한국청소년영화제(KYFF·Korea Youth Film Festival)가 10~1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피크닉무대(개막식)와 롯데시네마 충장점(상영, 폐막식)에서 펼쳐진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사)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이사장 노성대), 한국청소년영화제 조직위원회(위원장 서영진)가 주관하는 이번 영화제는 청소년영화제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행사다.

올해 영화제 주제는 '1318의 창, 시선과 기억'. 10일 오후 7시 아시아문화전당 피크닉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전년도 대상 수상작 '이민규-소녀와할머니'가 개막작으로 상영된다. 또 5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코스프레 포토존, 영상학과 홍보부스, 스틸사진전, 미디어제작체험전 등 부대행사와 청소년 플래시몹·싱어팀·댄스팀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또 11~12일에는 롯데시네마 충장점에서 총 152편 가운데 본선에 진출한 작품 27편을 상영한다.

이와 함께 전국에서 참가한 청소년 심사단이 함께하는 전국청소년영상워크숍(시네마캠프), 영화파티, 이정국 영화감독과의 대화도 마련된다.

12일 오후 4시 롯데시네마 충잠점에서는 축하공연과 시상식이 열린다. 대상에 여성가족부장관상(상금 150만원)을 비롯해 작품상과 감독상·연기상·청소년심사단상 등 개인상을 포함, 모두 17명에게 54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문의 062-368-804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부산-대구 비엔날레 교차 관람객 할인

"이미 다른 비엔날레를 보고 오셨군요. 관람료를 할인해 드릴게요."

광주비엔날레재단과 부산비엔날레재단, 대구사진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교차 관람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해당 비엔날레 매표창구에서 세 곳 중 하나의 비엔날레 입장권을 제시하면 티켓을 1000~3000원 할인해 준다.

광주비엔날레는 1만40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부산비엔날레는 1만원에서 8000원으로, 대구사진비엔날레는 7000원에서 6000원으로 각각 할인된 가격에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티켓 할인 혜택은 올해 비엔날레가 끝날 때까지 유효하다.

광주비엔날레재단 관계자는 "2016년에는 광주·부산 외에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비엔날레와도 협약을 맺어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전국에서 열리는 풍성한 예술축제를 더 효율적으로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아카펠라 밴드 '엑시트' 초청

국립광주박물관 내일 무료 토크콘서트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은 11일 오후 4시 교육관 대강당에서 아카펠라 보이스 밴드 엑시트(Exit)를 초청해 '아카펠라로 듣는 하모니,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주제로 토요콘서트를 개최한다.

엑시트는 서울 용문고 합창단 출신으로 구성된 남성 5인조 컨템포러리 아카펠라 그룹이다. 파워풀한 힙합부터 POP, R&B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넘나드는 음악을 들려준다. 디지털 싱긍 '담배가게 아가씨'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첫번째 미니앨범에 수록된 'beautiful',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동요메들리 등 모두 9곡을 들려준다. 특유의 펑키하고 신나는 그루브, 짜임새 있는 편곡을 만날 수 있다.

무료 공연으로 이날 오후 3시40분까지 입장하면 된다. 문의 062-570-7012.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영화성찬'에 인산인해…뜨거웠던 부산

부산국제영화제를 가다

79개국 312작품 초청
세계 첫 상영작도 98편
'다이빙 벨' 무사히 상영

규모 커진 '亞 필름마켓'
중국·유럽 등 적극 참여

20돌 앞둔 부산영화제
안정적 예산 확보 숙제

지난 7일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상영관 중 하나인 영화의 전당 야외상영관에 '카트'를 보기 위해 몰려든 4000여명의 관객들.

영화를 사랑하는 20~30대 청년들이 꿈을 꾸었다. 극장 10개가 밀집해 있던 부산 남포동 극장가에서 영화를 마음껏 보고,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밤새 술마시며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다. 부산시의 적극적 참여로 예산은 17억원을 확보했다. 1~2만명 정도 찾아오면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한데, 찾아온 인원이 무려 18만 5000명이었다. 일반 상영관에서 만날 수 없는 '영화'에 굶주렸던 이들이 그만큼 많았던 셈이다. 국내 첫 국제영화제인 1996년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시작이었다.

지난 3일 개막한 제 19회 부산국제영화제는 개막작 '군중낙원' 등 79개국 312편의 영화가 초청됐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상영하는 월드프리미어는 98편이다. 또 정진우 감독의 '한국영화 회고전', 터키영화 100년을 기념하는 '터키 독립영화 특별전' 등 특별전도 마련돼 있다. 올해 예산은 국비 15억원과 시비 60억원, 스폰서 등 자체 수입을 포함 모두 120억원 규모다. 올해 예상 관객은 약 23만명이다.

지난 6~7일 부산국제영화제 현장을 찾았다. 영화의 전당에서 가장 먼저 만난 건 매표소 앞의 관객들과 함께 부산시장의 상영 불가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다이빙 벨' 상영을 지지하는 영화인들의 피켓 시위 모습이었다. 이날 첫 상영을 했지만 "영화에 대한 판단은 관객에게 맡긴다"며 상영를 결정한 영화제 조직위원회의 말처럼 상영과 관련, 큰 불상사는 없었다.

비교적 관객이 적은 평일임에도 샌텀시티 멀티플렉스와 영화의 전당 등 상영관에는 영화를 보려는 관객들로 붐볐다. 특히 저녁 타임의 영화는 대부분 매진을 기록, 표를 구할 수 없었다.

인도 영화 '파니를 찾아서'가 상영된 소향아트홀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이 몰려들었고, 롯데시네마에서 상영된 슬로바키아 영화 '침묵의 소리' 감독 즈데넥 이라스키와의 GV(관객과의 대화) 시간에는 열혈 시네필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스쿠버 다이버로 활동하다 2006년 영화감독으로 데뷔한 '파니를 찾아서'의 호미 아다자니아 감독은 "사랑의 영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며 "부산영화제에 참여한 게 영광이고, 아시아 영화의 교류면에서 부산영화제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7일 부산 영화의 전당 야외 상영장은 인산인해였다. 부지영 감독, 염정아 주연의 영화 '카트'의 국내 첫 상영 현장에는 4000여명의 관객이 몰려 감독과 출연배우들의 무대 인사와 함께 영화를 관람했다. 영화 상영 전에는 해운대 야외무대에서 관객들과의 만남 행사도 가졌다.

2006년 첫번째 행사를 치른 영화·영상 거래의 장 '아시아 필름 마켓'은 부산국제영화제의 또 다른 축이다. 올해 행사에는 전 세계 영화 관련 회사의 부스가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223개로 확대됐고, 마켓 배지 발급자 수도 1566명으로 전년 대비 23%가 증가했다.

6일 찾은 벡스코 마켓 현장에서는 특히 중국 영화 관계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눈에 띄었다. 중국측은 올해 처음으로 중국영화인의 밤을 자체 기획하는 등 세를 넓히고 있는 중이다. 또 예년보다 유럽 지역 참가자들도 대폭 늘고, 배우 매니지먼트까지 참여하면서 모두 1만여 회의 크고 작은 미팅이 이뤄질 거라는 게 영화제측 설명이다.

내년이면 20돌을 맞는 부산영화제 역시 고민을 안고 있다. 국비 지원이 계속 줄어드는 등 4년 째 동결된 예산 때문에 올해는 영화제의 상징 중 하나였던 해운대 파빌리온(3억5000만원)을 세우지 못했다. 다행히 외국 기업 스폰서들이 점차 늘고 있지만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숙제다. 부산영화제는 오는 11일까지 계속된다.

이용관 집행위원장은 "부산영화제는 초창기부터 소통과 함께 갈등을 화해하고 치유하는 영화제를 표방했다"며 "올해 성장통을 끝내고 내년 20주년을 차분하고 실속있게 준비하려 한다"고 말했다.

/부산=김미은기자 mekim@

더 깊어진 눈으로 자연을 보다

서기문 '인간과 자연'전
15일까지 갤러리D

'봄 여름 가을 겨울'

미술과 사회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던 화가는 다시 자연을 찾았다.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근원적 에너지를 표출하는 작품들이 주는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다. 밝고, 경쾌한 느낌의 색조들이 짙은 물감을 뚫고 나와 만들어내는 것 같은 깊이감에서는 한층 완숙해진 작가의 생각들이 읽힌다.

전남대 미술학과 서기문 교수의 전시가 오는 15일까지 갤러리D에서 열린다. 서 교수가 광주에서 4년 만에 여는 개인전이다.

4년 전 작품 '노무현과 김대중' 등 역사 속 인물을 불러내 강한 메시지를 던졌던 작가는 이번에는 '인간과 자연'을 테마로 서정적이고 자연주의적인 작품들을 보여준다. 서 교수는 그동안 던졌던 자연의 경고 등 비판적 메시지보다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한다.

자연의 사계를 통해 인간의 삶을 이야기한 '봄 여름 가을 겨울' 연작이 인상적이다. 계절에 따라 색을 바꾸면서 아름다운 변화를 보여주는 자연의 모습은 나고, 자라고, 성숙하고, 휴식하는 우리의 삶과 닮았다. 매화고목에서 겨우내 봄을 기다렸던 부엉이의 모습을 담은 '믿음'에서는 겨울이 지나고 다시 찾아오는 자연의 섭리를 느낄 수 있다. 유화 물감을 이용해 수채화처럼 맑고, 투명하게 그려낸 작품들은 서 교수의 붓질과 색을 대하는 태도가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듯 하다.

전남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서 교수는 조선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대동미술상을 수상했으며, 동아일보 신춘문예에서 미술평론이 당선되기도 했다. 문의 062-222-8011.

/김경인기자 kki@